선지식 백중법문, 여름을 가득 채운다

부산 범어사 2024 백중기도
8월까지 석 달간 초청법회
5월 25일 입재식으로 시작
입재법문 자광 대종사 맡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법좌에 올라 입재법문을 하는 자광 대종사. 사부대중이 대종사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백중을 맞아 선지식의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 지장기도를 봉행하며 신도들에게 선사의 가르침을 전해 백중의 가치와 지장기도, 천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5월 25일 경내 설법전에서 '2024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10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가 법사로 입재를 증명했다. 입재식은 법문 및 인사말에 이어 영가 천도 기도와 함께 시식이 이어졌다. 신도들은 법회 이후 조상과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정진발원했다.

특히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서 최근 입적한 일원 선사를 추모했으며 아울러 백중 기도 기간 정진하고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오 스님은 "이틀 전 일원 스님의 영결식이 봉행됐다. 일원 스님은 범어사에서 70여 년간 주석하고 수행정진하며 모범적인 선사셨다. 정말 오고감이 없는 고요함으로 신도들을 만나고 주석하셔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범어사를 사랑하고 훌륭하신 스님이셨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백중기도를 원만히 입재하고 자광 스님과 신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도량을 정비했다.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회향까지 90일간 큰스님들의 법문을 잘 들으시고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입재법문에서 유심론을 강조하며 "신을 믿는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마음을 가르치는 유심론의 가르침이다. 일체유심조라는 이 가르침은 마음을 설명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드라망의 연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설명해준다"며 "삼독심 탐진치를 버리고 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는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초재 6월 1일(범어사 율주 수불 스님) △2재 6월 8일(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3재 6월 15일(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4재 6월 22일(계명암 감원 선재 스님) △5재 6월 29일(팔공총림 동화사 수좌 지환 스님) △6재 7월 6일(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 △7재 7월 13일(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8재 7월 20일(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9재 7월 27일(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10재 8월 3일(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11재 8월 10일(BTN 광우 스님의 소나무 광우 스님) △막재 8월 17일(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법문한다. 회향법회는 8월 21일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이 법문하며 마무리된다.

한편, 범어사는 5월 15일 '2024 행복바라미 부산지역문화제'를 개최했다. 범어사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자비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행복바라미의 의미를 시민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문화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및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후원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원창 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을 비롯한 범어사 스님들과 신행단체장이 동참했다.

(사)동련, 제40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

양정청소년수련관서 시상식
김민경 · 손예빈 어린이 대상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회장 효산 스님)가 5월 23일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제40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꽃' '나눔' '약속'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꽃문화제에는 그리기 부문 464명, 글짓기 부문 29명으로 총 493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76명이 수상했으며, 대상(부산시장상)은 그리기 부문 김민경(동상초2), 글짓기 부문 손예빈(낙동초5)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동련은 상장과 함께 각 수상자에게 드론, 자전거,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효산 스님은 "올해는 특히나 훌륭한 작품이 많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에 칭찬을 더하고 싶다"며 "더 많은 학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글과 그림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만 학생들, 동림사서 불교문화 체험

전통염색 · 참선 명상 등 배워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 스님)가 5월 23일 경내 일원에서 불교 및 한국전통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사진〉 특히 이날은 대만에서 찾아온 숭광고급중학교 학생과 부산성모여고 학생들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총 30여 명의 학생들이 동참했다. 동림사는 전통염색과 참선 명상을 체험의 시간을 제공하고, 활쏘기와 떡메치기 등을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통해 마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종교를 넘어서서 행복한 추억으로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림사는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동아대에 인재양성 기금 '쾌척'

동아대 공과대학 명예전당서
학생복지 발전기금 1000만원
이토 신조 원주 메시지 전달도



재단법인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과 부산지부장 영준 국원 등이 동아대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 국원)이 5월 20일 동아대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뇨엔은 인재양성과 학생복지를 위한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전달식에는 상임이사 정경 국원, 신뇨엔 부산지부장 영준 국원을 비롯해 장상목 동아대 공과대학장, 최영익 공과대학 부학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전달식은 내빈 소개에 이어 신뇨엔 원주 이토 신조의 메시지 소개,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원주 이토 신조는 동아대 명예의 전당에 "다른 다양한 개성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협력하는 곳에 지혜와 자비, 진여(眞如) 구제의 힘이 나타나 융화세계가 실현되리라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토 신조의 메시지는 명예의 전당 기념패에 새겨져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경 국원은 "신뇨엔 개조님과 원주님의 가르침이 담긴 기념패 앞에서 대학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되어 뜻 깊고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전달한 발전기금이 선한 일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타의 삶을 강조한 개조님의 말씀처럼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교관계자에게 응원의 찬사를 보낸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장상목 학장은 "진여원 정경 국원과는 교수불자연합회 학술대회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고, 매년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받아왔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전기금과 더불어 명예의 전당에 신뇨엔 원주 이토 신조님의 메시지로 동아대학교 공과대학의 발전을 기원해 주셨다. 의미 있고 뜻 깊다고 생각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시화전

부산불교문인협, 홍법사서 개최



사단법인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차정연)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부산 홍법사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화전을 진행했다.〈사진〉

개막식에는 실상문학상 이사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 이사장, 이석래 사단법인 부산문인협회 이사장, 김창식 영호남문인협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개막식은 축사 및 인사말과 배기환 회원의 여는 시, 시인 및 문인들의 시 낭송이 이어졌다. 시화전 작품은 50여 점이 전시됐으며, 봉축 기간 시민들이 관람하도록 안내됐다.

차정연 이사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올리는 시 낭송은 문인들의 불심이 담긴 음성공양"이라며 "시 한편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글에 담아 널리 알리 수 있어 한없이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정면 구멍있는 받침 탑뷰 구멍없는 받침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